



인공지능 학습 관련 단어들 : 데이터 라벨링

- 인공지능(AI)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주입해야 하는데 AI는 사람이 사용하는 문서나 사진 등의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다. 이 때문에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며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 라벨러라고 부른다.
-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과 동영상 등에 대해 데이터 라벨러가 ‘강아지’라고 라벨을 붙이면 AI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학습하면서 유사한 이미지를 강아지라고 인식하게 된다.
- 한편 정부는 2020년 5월 공공 및 정년 일자리 창출계획,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데이터 라벨링을 위한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. 특히 초기 라벨링의 경우 작업 난이도가 낮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.